

5·18 발원지 전남대 정문옆 '기억공간' 들어선다

북구, 신축 행복어울림센터 1층에 '그날, 오월'관 조성... 전시관·영상관·모형관 등

5·18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 정문 옆 담장 173m를 허문 자리에 1980년 5월을 되새길 '기억공간'이 들어선다.

3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5·18 사적지 1호인 전남대 정문 옆에 들어서는 행복어울림센터 1층에 5·18 기억공간인 '그날, 오월'관이 조성된다.

북구는 광주 5·18의 도시임에도 자치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성·운영하는 5·18 추모 공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기억공간을 계획했다.

북구는 5·18의 최초 발원지인 전남대가 위치해 있고 5·18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추모의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민들의 일상공간에 5·18관련 전시 및 추모공간이 들어서게 돼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오월 정신 계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기억공간인 '그날, 오월'관이 자리잡을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연면적 2251.57㎡, 지하1·지상5층)는 옛 북구청 직원주거장이 있었던 자리에 지난해 12월부터 공사가 진행중이다. 올해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11월부터 개관을 해 상시적인 5·18추모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어울림센터는 북구가 대학 태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1층의 5·18 기억공간 이외에도 주민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 2층은 다목적강당과 교육공간, 3층은 도시재생공동체센터로 조성되며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여성행복지원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4층과 5층은 창업 보육 공간,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 청년창업과 교류 증

진을 위한 장소로 제공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시설로 활용된다.

어울림센터는 5·18을 기념하는 의미로 건물의 전체 길이는 51.8m이며, 2층에는 5·18 형상으로 창문을 설계했다.

어울림센터 1층에 들어서는 그날 오월 관에는 추모공간·전시관·영상관·모형관이 오픈형으로 53.75㎡공간에 조성될 계획이다.

추모공간에는 포토존과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는 방명록이 비치되고, 전시관에는 사진 아카이브와 일기·취재수첩·관련 증인·1980년 이후 작품 등 공적 기록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영상관에는 5·18 관련 영상물이 빔프로젝터를 통해 상영되고, 모형관에는 1980년 당시 5·18 주요 거리 또는 사적지 모형을 재현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다.

세부적인 구성은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5·18기록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마련한다.

더불어 전시 자료 수집을 위해 5·18 유관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홈페이지 및 협수막을 통해 주민들의 기증을 유도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과 협의를 통해 5·18 해설사 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을 단순히 추모하는 대상이나 공간 차원을 넘어, 일상공간에서 밀접하게 시민들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구의 기념공간 조성은 의미가 있다"면서 "일상 속의 5·18, 5·18 안에서 일상을 찾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어울림센터 주변은 담장을 허문 대학과 연결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병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반기 아버지학교 운영 광주교육청 10~31일 월요일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 자녀 교육을 돕기 위한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

아버지학교는 ▲나는 어떤 아빠인가 ▲슬기로운 아빠의 소통법 ▲아빠 몸놀이 학교 ▲아빠 먼저 시작하는 우리 아이 성교육 등을 주제로 한다.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직장생활을 하는 아버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오후 7시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학부모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 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학부모모집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3일 광주시 서구 무악사 경내에 오색의 연등이 설치돼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교육감과 함께 즐거운 집콕놀이' 영상 제작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교육감과 함께 하는 즐거운 집콕놀이' 영상을 제작·배포해 눈길을 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놀이동아리(곤지곤지팀·노마아놀자팀)와 공동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집콕놀이-누그러니! 받거니!' 영상을 지난 3월부터 매달 한 편씩 제작해 시리즈로 배포하고 있다.

이 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놀이로 풀고, 부모-자녀간 정서적 교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으며 총 5편 중 현재 3편까지 유튜브에 탑재됐다.

이번 특별판은 '제99회 어린이날' 기념 각종 행사로 코로나19로 취소되는 상황을 감안해 장석웅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함께 출연해 가정에서 놀이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이 영상에 수록된 놀이는 게임으로 자기 소개하기와 369, 만두만두, 접어접어 등 가정과 학교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놀이 영상을 통해 온 가족이 놀이로 소통하며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전남대 컨소시엄, 인공지능 분야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선정

전남대학교 컨소시엄이 인공지능 분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에 선정됐다.

전남대 컨소시엄은 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인공지능분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이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전남대 컨소시엄은 오는 2026년까지 6년간 102억을 지원받아 참여대학들과 함께 의료(전남대), 공공행정(서울시립대), 교육학 및 경제·경영학(성균관대), 농업(전주대), 스마트시티(서울과학기술대) 등 융합 교과목을 개발하고, 화상도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 접근성 제고에 힘을 기울인다.

또 각 분야별로 개발된 교육 자료는 사업 수행대학 전체가 공유·활용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도 공개하는 등 성과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신규 과제로 불리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신기술 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계·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국가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분야(주관대학)는 ▲인공지능(전남대)을 비롯해 ▲빅데이터(서울대) ▲차세대반도체(서울대) ▲미래자동차(국민대) ▲바이오헬스(단국대) ▲실감미디어(건국대) ▲지능형로봇(한양대(ERICA)) ▲에너지신산업 등 8개이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참여대학뿐만 아니라 산업계, 연구계 등의 역량까지 결합해 우리나라 인공지능분야 인재 양성을 주도할 것"이라며 "전남대가 인공지능 인재 교육의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물범·얼룩말·무플론 산양...우치동물원은 '출산 중'

우치동물원이 물범과 얼룩말 등 새 생명이 잇따라 태어나며 활기를 띄고 있다.

우선 지난 3월초에는 2019년 타 동물원에서 데려온 잔점박이 물범 '초롱이'가 새끼 소말이를 낳았다.

소말이는 어미에게서 한달 만에 독립한 후 현재 내실에서 담당 사육사와 함께 홀로 먹이 먹는 법을 익히고 있다.

4월 중순에는 한동안 출산이 없던 얼룩말 가족

이 '루루'를 낳아 얼룩말사에 젊음의 열기가 넘쳐나고 있다.

지중해 출신으로 봄 계절번식 동물인 무플론 산양은 3월 중순부터 거의 모든 암컷들이 일찌감치 출산을 시작해 총 일곱 마리 새끼를 낳았다. 새끼들은 지난해 새 단장한 무플론사 언덕 위에서 뛰어들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임진택 우치동물원 소장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임시휴장 한 후 재단장해 올 2월부터 문을 열고

시민들의 생태학습과 휴식공간으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 종들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치동물원에서는 마다가스카르의 추장 알라코리여우원숭이들과 안데스의 요정 알파카, 주먹대장 스라소니 등 지난해 새로 들여온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9주년 광주일보

광주문화신탁 예금 한시모집!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8개월 연 1.87% (세전/만기해지)

12개월 연 1.80% (세전/만기해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신탁 첫거래시 **행복적금 연 4.0%**
(1인 월20만원 한도, 오픈뱅킹 가입조건) (세전/만기해지)

주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금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교세중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